

멕시코 칸쿤



2014년 상반기 사역보고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큰 사랑으로 칸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해야 함을 조금씩 알아가며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커가는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4.10일 마을이 되기를 기도 드리며 2014년 상반기 사역보고 드립니다

♣교육적 영역

▶방과후 교실 건축이 마무리되어 방과후 교실에서는 매일 연령별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성인 중,고교 교실 화-피아노, 기타교실, 수-수학교실 목-영어교실 금-컴퓨터교실 토-태권도교실



▶상반기 교사교육 및 교사 기도회 - 년 2회 실시하는 교사교육에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크리스천 교육의 기본과 방법을 배우며 모든 CDP아동, 가족, 봉사자, 프로그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주 천체 학습장을 견학

▶애국,애족 마음을 배우는 역사시간

▶ 봉사자 장학금지급



♣신체적 영역

▶ 정기 건강검진



▶ 무료급식



▶ 체육시간



▶ 약물, 성 교육, 인터넷, 게임중독 교육

인근 고등학교 학생 40%가 마약을 하고 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지도도 무척 시급한 상황 이므로 아동들은 물론 부모님들께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중독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적 영역

▶ 토요교실 성경공부 및 찬양



▶성경캠프- 성경세미나, 찬양, 게임으로 내가 누구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캠프였어요



캠프 참석 청소년들

잠자리가 재미있죠?

▶청소년 컨퍼런스 참석



♣사회/정서적 영역

▶CDP DAY

CDP DAY는 매년 어린이날을 겸해 즐거운 놀이와 물놀이 그리고 선물로 아이들에게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가정 방문

그동안 CDP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학부모 5분이 가정방문 봉사자로 자원해 주셔서 구역을 나누어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저녁에 모여 문제 가정을 돕는 방안을 함께 의논하여 돕고 있어 CDP가정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간답니다



▶ 생일 파티



▶ 종이접기



▶ 노래교실



♣ 지역사회 활동

공부방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멕시코 사회 각 영역에서도 졸업장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못했던 지역지도자, 주민, CDP학부모들이 등록해서 현재 중학교 6명 고등학교 32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노동조합에 속한 교육과정으로 졸업을 하면 졸업장과 상급학교를 진학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중학교교실



▶ 고등학교 교실



▶ 어머니 컴퓨터 교실



▶ 자원봉사 교육



▶ 학부모 모임



▶ 학부모교육



♣ 몬테 시나이교회 CDP활동

몬테 시나이교회에서는 교회 옥상에 천막을 치고 CDP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동들의 참여도도 무척 높고 CDP 프로그램을 통해 주일학교에 전도되는 아동들과 학부모들의 전도가 늘고 있습니다

▶ 성경공부



▶신문활용교육

▶플라우따교실

▶색종이 접기교실



♣ 공부방 건축 완공



♣ 맺는말

멕시코가 마약, 강도, 살인 등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이 역사시간을 통해 위대했던 마야 조상들의 찬란했던 문화를 배우며 조금씩 멕시코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멕시코로 살도록 사명을 주셨기에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며 한국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아십니까" 비디오를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더군요

우리 아동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나라로 변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구호를 외치며 다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멕시코는 정말 복음과 교육만이 해답입니다.

안타까운 사회현실에서 뿌러지고 있는 작은 씨앗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빈민촌이 아름다운 하늘마을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민주식 선교사 드림

♣나눔 스토리

“기사님 4월10일 마을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어디죠?”

“네 꾸나마야 마을 다음 동네요”

“꾸나마예요? 거긴 우리 안 갑니다. 우리 택시기사들이 위험해서 안가는 곳인데 당신은 외국인이 그곳에 뭐 하러가요? 큰일납니다, 거기는 시체 버리는 곳 이예요. 당신이 원하면 큰 도로에 내려 줄 테니 걸어 들어가려면 타세요!”

사역 초기 버스가 다니지 않아 택시를 타고 빈민촌에 들어올 때마다 기사님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마을 상황이었습니다 정글을 침범해 만들어진 마을이어서 나무꺾이나 가는 나무로 벽을 만들고 검은 기름종이로 지붕을 만든 방 하나 정도의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전기가 없어 해가 지면 칠흙의 어둠의 마을이었죠. 그러다 보니 도시의 범법자들을 이곳에 숨어살고 있었고 마약상, 마약, 알콜 중독자, 밤손님들이 이웃하며 한 마을에 살았지요

이 마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기있는 집을 CDP센터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곳에 살게 하시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앞집엔 알코올중독자들이 모여 아침까지 술 드시고 옆집엔 동성애부부 마약판매상까지 정말 밤이 무서워 새벽 2~3시까지 보초를 서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전등을 들고 밤거리를 다니며 어둠 속에서 삼삼오오 모여 마약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이 마을에 하루 속히 불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역 개발 사업비로 골목마다 방범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어둠이 밝아지기 시작하니 어두운 세력들이 점점 사라지며, 마을에는 건전한 밤 문화가 시작되어 골목마다 축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마을로 변하기 시작했고 전기가 부분적으로 들어오면서 벽돌집 건축하며 이 곳을 제 2 고향으로 터전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CDP사역이 이 마을에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마을 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가정에는 변화가 없어 무척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이곳에는 '유니온 리브레'라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을 '유니온리브레'라 하는데 그들을 사회복지법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학교입학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칸쿤시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족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니온 리브레'로 살면 전 가정의 본 남편이나, 본 부인이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계부, 계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고 부모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또한 무지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방법을 몰라 방관한 결과들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를 폭행하고 네가 어머니 설거지 빨래 다 해야 한다며 집안일을 돕지 않는 등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음을 이번 가정 방문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중학생 한 아이가 공부방 인터넷 비밀번호를 5,000 원씩에 팔고 있다고 주민이 신고해주더군요 한 가정은 작년 선교팀이 양철로 지붕교체 해줬더니 남편이 밤에 몰래 집을 팔고 부인과 전 남편의 자식은 두고 자기기 애들만 데리고 도망가고...

지난 주 지붕 교체한 가정 엄마가 와서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한다고 해서 가정 방문해 보니 부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애들 두고 생일 잔치에 가서 늦게 왔다구..... 똑 같죠? 이것이 유니온 리브레 가정 상황입니다.

가정방문 봉사자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CDP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며 존중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방과후 공부방을 깨끗하게 꾸며 주고 외적으로 변화되어 보이는 아동들의 모습으로 때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였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미처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가족관계에서 1차적으로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빼앗긴 사랑들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했을 것입니다. 하루 두 끼 식사가 정상적인 식사 횟수인 줄 알고 평균에 못 미치는 작은 몸집으로 학교에서도 소외 당했을 우리 빈민촌아동들.... 상처뿐인 우리 아이들이 위로 받을 곳은 오직 우리 주님 품입니다.

이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상처받은 아이들 이젠 꼭 껴안아 주겠다고 회개하며 다짐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먼 길이지만 “우리는 멕시코의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저희들이 품은 우리 빈민촌 아이들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멕시코 민주식 선교사 드림